처박히는 구두 높아진 하이힐

‘남성의 종말’

해나 로진 지음

급기야 이런 책까지 나오고 말았다.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질릴 정도로 유행할 때도, 여성의 고시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거나 ‘주부아빠’ 소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만 해도, 전통적 남성성이 옅어지고 있는 징후로 받아들이긴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일부 굴욕의 남자’들 얘기로만 애써 넘기려고 했던 듯하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더니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전형적인 ‘뒷북’인 셈이다. 책에 담긴 내용처럼 ‘뻣뻣한 남자’라는 소리를 듣는 지도 모르겠다.

우선, 제목이 파격적이다. 원제가 ‘The End of Men’. ‘남자의 종말’이다. ‘여성의 지배가 시작된다’는 부제와 ‘남성 호르몬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는 문구도 유독 선명하게 눈길을 끈다.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부부의 경우 아내가 아침밥을 짓는 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깨우고 방 청소를 한다. 퇴근하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넌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익숙하게 넘기겠는데, 훨씬 더하다.

‘역전의 시대’라는 문구를 쓸만한 내용이 가득하다.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체 노동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남성을 넘어섰다는 수치나 세계 전역 대학·전문대학에서 여성이 우위에 섰다는 내용, 앞날이 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업종 중 12개가 여인 천하를 맞고 있다는 ‘팩트’를 제시한다.

중국에선 민간기업의 40% 이상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다. 2009년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론 최초로 총리에 오른 아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는 “남성 호르몬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어깨 힘 빠진 남자들에겐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 수석 에디터이자 ‘뉴욕타임스’, ‘위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기고해온 저널리스트 해나 로진은 남성 우위의 시대가 저물고 여성이 대신 자리를 꿰찬 실태를 ‘잔인하게’ 드러낸다. 구체적 통계 수치와 방대한 인터뷰를 통해 ‘남성의 추락’이 전 세계적 사회 현상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낯설게 들리는 ‘가모장제’(家母長制)를 비롯, ‘시소결혼’ 등의 용어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역할 변화들을 직시할 것을 조언한다. 데이트나 섹스를 거부하고 정원 가꾸기나 간식 모임 차리기로 시간을 보내는 젊은 남자들, ‘초식남’과 이들에게 두렵기만 한 존재인 파워우먼들인 ‘육식녀’, ‘사냥녀’들의 얘기도 읽힐만하다.

‘아무리 그래도 딴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 넘길 수도 없다. 8개 분야로 나눈 책 중 8장 ‘골드 미스 분석’은 가장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 토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대생들의 모습을 비롯, ‘알파걸’, ‘킹콩걸’, ‘건어물녀’ 등의 용어가 등장한 한국 사회를 구석구석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도 드러낸다. ‘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아침마다 이별하는 엄마’라는 전면 광고를 실은 황명은씨 인터뷰를 통해 한국 워킹맘들의 부담을 소개하는가 하면, ‘한국 아내에게 지워진 가사 부담은 20세기 초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주부는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두 모셔야 한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아이의 과외활동 목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도 썼다.

저자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의 핵심이 세계가 서비스·정보 중심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집중력 등이 남성의 육체적 힘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여성의 경우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고 도전, 적응하는 ‘유연함’을 보이면서 영역을 넓혀간 반면, 남성은 변신에 주저하고 ‘뻣뻣함’을 유지하는 등 전통적 관념에만 매달리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남성 독자들이라면, 챙겨 읽어봐야 할듯하다. 마초성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민음인·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럼에도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리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지음

일본 사회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도쿄대 강상중 교수의 저서 ‘고민하는 힘’은 지난 2009년 일본과 한국에서 출간된 후 많은 화제를 모았다. 강 교수의 새 책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불안과 좌절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목 조목 들려주는 책이다.

책은 최근 자신의 삶을 흔들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

극도의 신경증이라는 불치의 병에 시달리며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던 아들은 자신의 파멸과 세계의 파멸을 바랐다. 하지만 ‘왜 태어난 것인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그는 어느 순간 평온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 순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닥친 일본 도호쿠 지방의 원전사고로 2만명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저자는 ‘이런 비참함을 겪고도 살아야 하는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럼에도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려네’라는 빅토르 에밀 프랑클의 말을 버팀목 삼아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왜 이토록 고독한가’, ‘돈·사랑·가족·자아의 돌출·세계에 대한 절망 등 다섯가지 고민거리’,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등 9장의 이야기를 통해 좌절을 넘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파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다. 학력이나 자산, 소득이나 지위의 극단적인 격차와 행복과 불행의 차가 역력해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 안에 원한이 퍼져있는 지금,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해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 비참하지는 않더라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한다고.

〈사계절·1만1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골목길에 숨쉬는 도시의 역사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한필원 지음

‘물길이 있어 시(詩)가 되는 도시.’

건축인문학자인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에서 나주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교수는 “나주천변으로 서로 다른 색의 대문을 낸 집들이 빈 공간을 채워나간다면, 동네가 살아나고 나주천은 힘 있는 도시의 선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썼다.

책은 ‘다시 가보고 싶은 그곳, 매혹적 지방도시 순례기’라는 부제로 저자의 발길을 사로잡은 9개 도시를 소개한다. ‘역사가 긴 도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도심부를 가진 도시’, ‘현대도시로서 매력과 잠재력이 큰 역사도시’ 라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포함된 도시가 나주·전주·충주·안성·강경·춘천·통영·밀양 등으로, 7년간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공동체 생활이 사라지고 개인 이익에만 골몰하는 현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 생각이다.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도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심과 경계, 가로축과 물길, 골목과 주택, 공동체, 이야기와 장소 등을 담은 ‘도시답사 노하우’도 곁들여 설명한다.

〈휴머니스트·2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을 보는데 삶이 읽히네

‘강물되어 강을 건너다’

김성의 지음

글을 입혀서일까.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진이지만 스토리가 읽힌다. 단순한 사진이지만 ‘피사체 재현’이라는 기능을 뛰어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전달된다. 지나쳐온 시간과 공간을 스케치하듯 엮어낸 저자의 시선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소아과 전문의 김성의씨가 낸 ‘강물 되어 강을 건너다’는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담아낸 일상의 풍경 이야기다. 사진 찍기를 싫어했던 저자가 무심코 지나친 공간이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에 빠져들면서 모은 사진 에세이다.

익숙한 장소인데도 낯설게 느껴지는가 하면, 러시아·일본·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 등 이국적 풍경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는 어깨 힘을 빼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뒤 260여장을 뽑아 ‘깊은 숨 깊은 향기’, ‘선향’ 이라는 소주제로 나눠 글을 입혔다. 모든 사진엔 저자의 느낌을 담은 글이 국·영문으로 함께 실렸다.

〈 수다·2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금 당장 ‘쫄깃’하게 살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쫄깃’

메가쑈킹·쫄깃 패밀리 지음

‘애욕전선 이상 없다’, ‘탐구생활’등의 인터넷 만화로 잘 알려진 만화가 메가쑈킹은 현재 제주도에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중이다. 이름하여 ‘쫄깃쎈타’.

메가쑈킹과 쫄깃 패밀리가 함께 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쫄깃’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협제에 쫄깃센타를 짓는 과정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책이다.

책으로 둘러싸인 거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문 등 작지만 인상적인 공간에서 ‘손님’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간다.

이 책은 단순히 누군가의 제주도 정착기가 아니다. 슬슬 읽다보면 긍정과 즐거움이 자연스레 감염되는 책이다. 다 읽고 나면 쫄깃쎈타에서 하루 정도 묵으며 쫄깃 패밀리,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과 만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다.〈청어람미디어·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철학으로 녹여낸 삶과 예술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예술’

최도빈 지음

‘환상’ 제공을 최고 목적으로 삼는 라스베이거스의 쇼들은 거대한 자본의 힘이 개입돼 있다.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의 작품 ‘o’ 역시 ‘환상’을 흩뿌리고, 관객들은 서커스를 보며 현실을 망각한다. 미학자 최도빈은 현실과 본질에 대한 질문이 결여된, ‘환상만’ 창출하는 이 공연은 예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예술이란 어떠한 물음을 품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현재 뉴욕주립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최도빈씨가 펴낸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예술’은 미술, 음악, 건축, 무용, 사진과 패션 등 우리 시대의 삶과 예술을 철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3년여 동안 북미 대륙과 일본, 유럽 등을 직접 돌아보며 예술의 현장에서 직접 느낀 생각들을 담았다. 피츠버그의 앤디 워홀 미술관, ‘지금’을 담아내는 뉴욕현대미술관, 일본 모리 미술관 등 유명한 미술관은 물론이고, 태양의 서커스, 시카고 조프리 발레단, 소살리토 아트 페스티벌 등 공연현장을 두루 살펴보았다. 각 챕터마다 실린 ‘리플렉션’이라는 꼭지에서는 여행의 소회와 철학적, 사회적 주제 등에 대해 찬찬히 풀어내고 있다.

〈아모르문디·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첫 문장 못쓰는 남자=벨기에 출신 베르나르 키리니의 단편 16개를 엮었다. 지난 2005년 발표, 젊은 프랑스어권 작가에게 주는 보카시옹 상을 수상한 단편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를 비롯해 ‘거짓말 주식회사’, ‘마타로아호의 밀항자’, ‘물뿌리개’ 등 저자 특유의 철학적이면서 환상적 단편들이 실렸다.

〈문학동네·1만2000원〉

▲종가의 삶에는 지혜가 있다=㈔이연자 한배달우리차문화원장이 전국 대표적인 종가 28곳을 소개하고 있다.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고죽 최경창의 종가를 비롯, 광양시 칠성읍 나주 나씨 송도공파 나천정 종가, 장흥군 관산면 방촌 문화마을 반계공 위정명 종가, 보길도 경주김씨 상촌공파 김서오 종가 등을 둘러보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풍, 풍습, 문화 등을 소개한다.

〈알에이치코리아·1만6000원〉

▲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수업=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를 통해 소개한 교육의 핵심 포인트를 책으로 엮어냈다. 부모와 교사가 구체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 코칭법을 팁으로 추가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랑받는 권위’, ‘배움의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수업’, ‘좋은 수업은 관계로 이뤄진다’ 등으로 나눠 학부모가 아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육해야 하는 지 방향을 제시한다.

〈북하우스·1만4800원〉

▲카뮈 그르니에 서한집=장 그리니에와 알베르 카뮈가 주고받은 235통의 서신을 모아냈다. 카뮈가 보낸 편지 112통, 그르니에가 쓴 123통을 통해 두 작가의 우정과 사색, 카뮈가 작가가 되기까지의 내적 성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 신화’ 등 역작들이 씨앗에서 열매로 영글어 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책세상·1만7800원〉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조선·고려·발해·신라 순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리스도교의 한국 전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는 국내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최초로 전래된 1784년, 1885년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찾아서’, ‘발해와 신라에 핀 그리스도교’ 등으로 나눠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문물·사상의 교류,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한반도 유입 흔적을 시대별로 쫓아가고 있다.

〈돌베개·2만원〉

▲ 웰컴 투 씨어터=서울 예술의 전당 하우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정아씨와 양우제씨가 극장을 통해 예술과 경영을 배운 이야기를 담았다. 공연장에서 일하는 여러 스태프 중 하우스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 지 등을 자신들의 경험을 곁들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연극과 인간·1만4000원〉

어린이 책꽂이

▲개조심=동화,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집필중인 진도 출신 작가 박상률씨가 진도 명물 진돗개를 소재로 쓴 동화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진돗개 ‘백구’가 하룻동안 고향이자, 개들의 천국이라는 진도를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냈다.

〈창비·9000원〉

▲맘대로 마을=엄마가 골라 주는 옷을 입고, 학원에 가야하고, 학습지 공부에 쉴 틈이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한 대영이가 어느날 맘대로 마을로 가는 초대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환제씨가 썼다.〈파랑새·9500원〉

▲코 짧은 코끼리=타이완의 대표작가 황춘밍의 동화집. 쥐를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고양이 이야기를 그린 ‘나는 고양이라구요.’, 설탕과 감언이설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탕을 좋아하는 임금님’, 할아버지와 함께 허수아비를 만드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야기를 그린 ‘참새와 허수아비’,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곱사등이와 그를 도와주는 카오칸칸의 이야기를 그린 ‘곱사등이’ 등 5편이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9000원〉

▲우리 아빠 재우기는 정말 힘들어=날마다 아이 재우기에 지친 아빠와 자기 싫은데 자꾸 자라고 하는 아빠가 미운 아이가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보는 그림책이다. 책 속에서는 아빠와 아들 역할이 바뀌었다. 아들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하고, 불을 끄지 말라고 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재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그린북·1만1000원〉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엄마와 아기를 위한 태교 그림책이자, 태담 그림책이기도 하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둥근달’, ‘소라껍데기’ ‘곰인형’ ‘복주머니’ 등 아름다운 울림의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냈다.

〈한울림·1만2000원〉